

로버츠 감독 “류현진, 다음 등판도 선발이다”

워싱턴전 패전서 얻은 희망과 과제

151km·7이닝 102구 등 투구내용 만족
2사 후 실점 연속...컨트롤·집중력 숙제

LA 다저스 류현진(30)이 6일(한국시간) 홈구장 다저스파크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전에 선발투수로 등판한 뒤 102개의 투구수로 77안타(3홈런 포함) 4삼진 무사구 4실점을 기록했다. 팀이 2-4로 패하면서 류현진은 시즌 6패(2승)째를 떠안았다. 시즌 방어율은 전반기까지 3점대(3.91)에서 이날 경기 후 4점대(4.08)로 올랐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한투 풀어야 할 숙제도 나타났다. 그러나 투구내용을 뜯어보면 의미는 생기었고, 진전이 있는 등판이었다.

●어깨수술 후 최다이닝-최다투구-최고구속

류현진의 이날 등판이 의미 있는 것은 2015년 어깨 수술 후 최다경기 전파투구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3차례(4월19일 콜로라도전, 4월25일 샌프란시스코전, 6월1일 세인트루이스전) 6이닝을 소화한 것이 개인 최다인닝 기록이었다. 그리고 5월12일 콜로라도전에서 4이닝 동안 101개의 공을 던진 것이 100개 이상 던진 유일한 경기였다. 선발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발목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닝터'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에 어깨수술 후 최고구속 94마일(151km)까지 찍었다는 점도 희망적이다. 1회 우승된 간판타자 브라이스 하퍼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볼에 비롯해 경기 초반 지속 94마일 포심패스트볼(직구)을 자주 구사했다. 직구가 살면서 다른 변화구도 위력을 발휘했다. 그동안 구속 저하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많았지만, 이제 어깨 수술 후유증에 따른 몸무게도 제쳐놓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이날 4실점을 모두

류현진 워싱턴전 투구내용 (6일)

매출순위	선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1)유	타너	우망		一망		三안		좌비
(2)좌	레이번	三망		우망		우망		우망
(3)우	하퍼	삼진			중비	좌동안0		
(4)一	지머먼		삼진		중안	우망		
(5)二	머피		삼진		二망		우비	
(6)三	펜터스			좌유평0	중2		우망	
(7)좌	위터스		二심		좌중비0		一파	
(8)중	티일러		三망		우망			삼진
(9)투	곤살레스			우비		우비		
打 7회	구천							좌동안
투구수	총 102구	12구	27구	10구	18구	17구	8구	10구

※5회 레이번 타석 폭투로 1루주자 터너 2루 진루

류현진 워싱턴전 투구분석 (6일)

구분	기록	구분	기록
이닝	7.0	구종	직구(42)
실점(자책점)	4(4)		체인지업(24)
안타(홀런)	7(1)		커브(23)
4사구(사구)	0(0)		슬라이더(9)
탈삼진	4	최고구속	94마일(151km)
투구수	102		

2사 이후에 내렸기 때문이다. 2회 2사 후 앤서니 렌덴에게 선제 솔로홈런을 허용했다. 홈런은 불의의 일격이라고 치더라도, 4회(2실점)와 5회(1실점) 2사 후 실점한 과정이 좋지 않았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구석이 다소 줄어들고 컨트리들이 정교해지지 못하면서 실투가 안타로 연결된 부분도 개선해야할 숙제로 꼽혔다.

●로버츠 감독 “류현진은 다음에도 선발” 약속

류현진은 선발투수 알렉스 우드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이날 임시선발로 나섰다. 현재 불안한 신분이다. 그러나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이날 경기 후 현지 취재진과 인터뷰서 향후



LA 다저스 류현진이 6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워싱턴전에 선발등판해 희망의 역투를 펼쳤다. 이날 패전투수가 됐지만 2015년 어깨수술 후 최다이닝(7), 최다투구수(102), 최고구속(151km)을 찍었다.

LA(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류현진의 등판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다음 등판도 선발이다”고 공언했다. 결과를 떠나 이날 보여준 투구내용 자체에 만족한다는 의미다. ‘과거의 류현진’으로 돌아갈 가능성과 희망을 봤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다져

스는 우드의 부상 속에 마에다 겐타, 리치 힐 등 선발투수들이 이닝이더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로버트 감독으로서 이날 류현진의 건강한 7이닝 투구에 눈길도 갈 수밖에 없었을 터이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튼공과 바빔의 시대...운빨과 실력 사이

〈BABIP : 인플레이 타구의 안타 비율〉

베이스볼 브레이크

운빨 개입 여지 적은 뜬공 타자 전성시대
땅볼타구 안타 만드는 것도 노력이 필요

kt 김진욱 감독은 최근 특 던진 것 같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말을 했다. “우리 팀 타자들의
땅볼 비율이 너무 높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kt는 득점력 저하로 고전하고 있다. 5일까지 팀 득점 240점은 LG(230점) 다음으로 적다. 팀 OPS(출루율+장타율)

0.711은 전체 최하위. 한마디로 위협적이지 못
한 야구를 한다는 뜻이다. 그 진단을 김 감독은
'타구의 질'에서 찾은 것이다. 김 감독 통찰처럼
2017년, KBO리그는 '뜬공의 시대'다. 그리고
BABIP(인플레이 타구의 안타 비율)의 시대다.

● 뜯공의 시대

통계적으로 봤을 때, KBO 현역 최고타자로 통하는 KIA 최형우는 땅볼/뜬공 비율은 0.79%이다. 즉 뜬공 1개에 땅볼 0.79개 비율이란 의미로 그만큼 뜬공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다. 여기서 뜬공은 포물선을 그리는 타구와 빨랫줄 타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뜬공의 범위에 장타 혹은 장타

가 그만큼 많이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땅벌에 비해 웅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타구를 양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롯데 이대호의 땅벌/푼공 비율도 0.64이다. 롯데 타구 중에서 이례적인 수치다. 한화 김태균도 0.71개꼴이다. 2017년 KBO에서 가장 '핫'한 SK 타자들의 땅벌/푼공 비율도 단연 돋보인다. 김동엽 0.75개, 이흥구 0.53개, 최정 0.40개 그리고 로맥은 0.26개꼴이다.

반면 k는 핵심타자 중 박경수(0.60개), 유한준(0.91개) 정도가 땅볼/뜬공 1개 미만 비율이다. LG도 땅볼타자가 많이 분포한 편이다. 확률적으로 땅볼은 병살타의 위험이 높고, 수비수에게 걸려 아웃될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는 곧 득점력 저하의 개연성을 불러온다.

● ‘BABIP 신(神)’을 찾아서

알려진 이후 BABIP는 더
아니다. 피안타율에 대해
투수는 그만큼 수비 지원을
없었다고 봐줄 수 있다.
있었던 kt 마무리 김재윤이
것은 2016년의 불운을 보
2016년 BABIP가 예년에
무리 박희수가 2017시즌 고
균으로의 수렴이다.

반대로 타월에 비해 BABIP가 높은 타자는 '땅볼타구가 수비수 사이로 빠지는 안타가 많았'다는 운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타자는 홈런타자가 아닌 한, BABIP 숫자를 올려야 안타 확률을 키울 수 있는 것이 필연이다. KBO 리그를 선도하는 박 선 선수들이 BABIP의 개념을 이해하는 현실은 우연이 아니다.

김영중 기자 galzby@donga.com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KIA 최형우

304.2이닝 무실책 최형우의 '피와 땀'

김기태 감독 “수비 안정감 생겼다” 칭찬

“수비는 연습을 통해 발전하게 돼 있다.” KIA 최형우(34)의 말에는 울림이 있었다. 뛰어난 공격력을 갖췄지만, 늘 수비가 약하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가 이제 더욱 그랬다. 최형우는 프리에젠티온(FA)를 통해 KIA 유니폼으로 돌아입은 올 시즌 발군의 가량을 뽐내고 있다. 55경기에서 타율 0.333(195타수65안타), 14홈런, 40타점, 출루율 0.447, OPS 1.103을 기록 중이다. 공격력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발전을 이뤄냈다. 5월까지 올 시즌 300이닝 이상 소화한 외야수 15명 중 좌익수는 김재환(두산·440.1이닝), 권희동(NC·398이닝), 김현근(삼성·371이닝), 김문호(롯데·306.1이닝), 그리고 최형우(304.2이닝)의 5명. 이 가운데 단 한명의 실책도 기록하지 않은 선수는 김현근과 최형우다.

단순히 실책이 없다는 이유로 수비가 좋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외야에선 뜀에 띄는 실수가 아니더라도 실책이 아닌 안타로 기록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다. 그러나 보는 이로 하여금 안감잡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정확한 송구로 보살도 3차례 기록됐다. 제4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표팀에선 경기 후반 대수비 카드를 고려했을 정도로 수비가 약하다는 편견이 있었을 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기우로 만든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 '수비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커졌다. 스스로 코칭스태프에게 '수비 훈련을 많이 시켜달라'고 부탁하며 열정을 보인 걸까. 최형운은 "어제는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다. 포수 경험치 도움이 된다"며 "펜스플레이시에는 펜스의 재질이 바뀌면서 공이 튀어나오는 각이 작아졌기에 크게 바운드를 계산할 필요는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확실히 수비에 자신이 있다"며 "타격은 몰라도 수비는 연습을 통해 발전하게 돼 있다"고 힘입어 말했다.

KIA 김기대 감독도 “(최형우가) 수비 잘해요”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안정감이 생겼다. 김오령(KIA)처럼 수비력이 뛰어난 선수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자기 위치에서 타구 처리를 잘해주는 것 자체로 훌륭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광주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광주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21C 생명공학적 차원이 다른 - 간(肝)이 건강하면 '숙취해소'가 빠르고 活力이 넘치며 수명도 길어진다. -

간(肝)건강 피로 숙취해소"의 제왕

임상 발명품

간(肝)건강 피로 회복 · 건강 보양에!
- 숙취음료에도 진품명품이 -

365일 상쾌한 아침

피로회복 「스트레스」, 두통, 구토감에
(음주전후 숙취해소는 기본)
허약체질, 원기회복, 신진대사 촉진에
(男女老少 건강보호증진)

※한방생약재 울금(生薑) 생(薑) 오미자 등 14종/생약공화제품, 카토라피로/활성중합비타민, 비피리딘과 1기저장/폴리코일, 타우린, 부활 등 30가지 고급 원료가 첨가된 사상의학 「사이오 빈」 제품으로 **간(肝)건강+건강 보양, 1석2조** 제품입니다.

※비타민C, 에우가롤, 간장은 물론 365일(1년, 365일)을 음용하면 간(肝)이 편안하여 숙취의 피로가 보다 빠르게 해소, **건강 보호증진**에 걸음잡니다.

5無

- 설탕
- 색소
- 무색소
- 카페인
- 화학 방부제

서비스만족대상
한국일보
고객만족1위 상품
스포츠조선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스포츠 코리아
2016 히트상품 선심
임진스포츠

● 국내 유통되고 있는 기존 "숙취해소" 음료 제품은 임상 데이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는 제품들이 TV광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고객(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불신이 높아 널리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당시 굿모닝 365 제품은 "여명 808"의 「막가파식, 음해」 감질"과 약 15년동안 시장 진입을 하지 못하였으나 사귀었던 구사원생 부활 탄생하였습니다. 착하고 정직한 국내의 "숙취해소"부분 인터넷 검색어로 "임상데이터, 1위 제품으로 고객님들을 다시 찾아보고자 전국 지역별 영업소(평생 주주형)를 초빙합니다. 당사는 반드시 성공신화를 함께 일구어 낼 것입니다.

전국 영업소 및 대리점 추가모집

- 대상 : 건강식품 숙취음료 및 남품, 신규 창업자
- 계약방법 : 현지 방문 및 본사 직접 내방 계약
- 자격 : 영업소, 대리점 보증금 〇〇〇만원 이상
- 지원범위 : TV, RD, 신문, 온라인, 홍보물 등

현재 영업소(대리점) 계약지역 및 계약자 명단

- 서울강서(박종우)
- 인천광역(임성택)
- 울산광역시(김종성)
- 경기동부(이주현)
- 부산광역시(권기용)
- 경기북부(최종성)
- 경상남도(박정현)

대한민국우수발명특허대상 제1433188호
(한방생약재 활성중합비타민 아미노산 함유된 숙취해소음료 조성물)

간(肝)건강 피로 스트레스 숙취 두통 구토감 등
정부출연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 생리조형임상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www.굿모닝365.com www.gmn365.com 식품의 유형 : 액상추출물

미국FDA 권위연구기관
(CFR21-Eurofins,lab)

5억원
KARI

※ 굿모닝 365 제품은 위생이 아닙니다.
※ 카다만 음주는 가증의 형태와 건강을 해칩니다.

● 제조(유통사) : (주)굿모닝산업(주)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38, C39빌딩 303
· 본사(연구소) : 경기도 수원시 신원로 15-9 15-9연지
· 고객센터 : 1000-5004, TEL 031-908-5003 / FAX : 031-908-5002
· E-mail : gmnbi@naver.com